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주자 집중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광주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순항

달피마을·가야제 저수지

복원사업 연내 마무리

광주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과 광산구 가야제 저수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의 생태를 복원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녹색쉼터로 제공하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과 광산구 가야제 저수지는 모두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협력관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이다.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선정돼 총 35억원이 투입

됐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과 생태학습장, 생태놀이터, 자연관찰로 등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올해 선정된 광산구 가야제저수지에는 총 5억원을 투입, 멸종위기종 2급인 가시연꽃 군락지, 수질정화 습지, 생태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 중이다. 광주시는 이들 생태공원이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과 생태커뮤니티 여가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훼손되고 방치된 유휴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택과 집중... 지역·빈부·교육 격차 해소”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실에서 안 의원(가운데)과 박지경 광주일보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이 후보자 검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희만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떠한 질문에도 명쾌하게 답했다. 갈수록 인터뷰나 토론 실력이 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안 전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한 대선주자 검증 집중 토론회에서 다음 정부의 역할로 미래 대비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리고 여소야대와 당대제 상황에서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 대선출마를 선언할 때 5대 가치에 대해서 말했다. 공정·자유·책임·평화·미래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또 지금 가장 크게 훼손된 가치다. 이 가치를 바로 잡는 게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 왜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대가 요구해야 한다. 국민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사람인지 판단해줘야 한다. 이런 가치(시대정신)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판단 기준은 첫째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십이다.

둘째 유능한 리더십이다.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과정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

개헌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붙여야

탄핵 반대세력 면죄부 주는 연대 안돼

반 전 총장에 외교문제 특사 제안할 것

넷째는 책임지는 리더십이다. 국민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은 적절하게 책임지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런 자격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자신 있다.

- 개헌 로드맵과 방향은.

▲ 개헌은 꼭 해야 한다.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방향은 크게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의 획기적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 3가지다. 우선 국민기본권 향상과 관련, 국민 안전과 복지에 대한 국가 책무를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IT 정보 인권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다. 권력구조 부분에서는 제약적인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방법으로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집중부제 정도가 있다. 그 중에서 저는 의원내각제는 반대한다. 그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상황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논의하는 입장이다.

- 대북·외교정책의 기조는.

▲ 대북관계는 현재 제재 국면이다. 하지만, 제재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다. 제재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대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핵문제고, 안보문제의 경우 우리 동맹인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반기문 전 유엔총장에게 특사를 포함해서 외교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탁해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있는지.

▲ 빈부격차, 지역 간 격차, 교육격차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 중 핵심이 지역 간 격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느 지자체는 역력이 부족한데도 10여개 사업에 골고루 투자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또 그 지역 내에 이미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 투자가 돼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이미 투자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사업에) 이미 투자한 비용은 잊어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지역 내에서만 머무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 연정에 대한 생각은. 손학규 전 대표의 연정 주장과 차별점은.

▲ 손 전 대표는 대선 전 지금까지 하자는 거고 저는 선거 결과로 승리한 정당에 주도해서 협치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협치의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연정이다. 그리고 저는 탄핵 반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정, 정치인만을 위한 무원칙한 연대,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공학적 연대에 반대한다.

- 지난 4·13총선에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 이후 국민의당이 호남민심을 확실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일단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리베이트조작사건이다. 정외대 모 수석의 지휘 하에서 한달 동안 계좌추적을 했는데 아무도 돈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지난 1월에 7명 전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이제 국민이 제대로 평가해줄 거라 믿는다.

- 경선 필승전략은.

▲ 절대 방심하지 않는다. 당원과 국민께 누가 본선에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지, 나아가 누가 제대로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 기자

광주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속도낸다

노동청·광주상의회와 57억 약정

광주시가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22일 시청에서 윤장현 시장과 김영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남현일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약정식을 했다.

이들 기관은 자동차, 가전, 에너지 등 광주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통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또 청년취업자를 늘리기 위한 고용촉진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에는 각 31억원과 26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이들 생태공원이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과 생태커뮤니티 여가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훼손되고 방치된 유휴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올해 추진하는 혁신 프로젝트는 '위기 잡고(job go) 일자리 업고(up go) 광주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전략산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 고용서비스 확산 등 5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 일자리 창출 ▲가전산업 위기극복을 통한 고용 확대 ▲에너지 신산업 고용촉진 패키지 ▲광·생체의료 향상 프로젝트 ▲청년층 고용촉진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유도 등이다. 또 신규 인력양성과 재직자 향상훈련, 창업지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면 일자리 새롭게 만드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분권 강화·지역 균형발전” 한목소리

지역 진보·보수 시민단체

오늘 조선회에서 범시민대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추진체를 만들어 한목소리를 낸다.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광주 조선회 해오름관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월 진보 진영 중심으로 출범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와 지방분권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제안으로 태동했다.

특히 진보 성향 시민단체뿐 아니라 광주 시민단체총연합, 재향군인회 등 보수 성향 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해 사전 준비회의를 함께하는 등 지역 공동 목표를 위해 뜻을 모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추진위는 범시민대회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놓은 대선공약 과제를 토대로 지역 현안을 간추려 발표하고 대선 주자들과 지방분권 실현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도 할 예정이다. 대선 경선 레이스 시작과 맞물려 호남 표발같이 나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대선 주자들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

Advertisement for the 10th Shinan Tulip Festival. It features a large graphic with the text '제10회 신안 튤립축제' (10th Shinan Tulip Festival) and 'The 10th Shinan Tulip Festival'. The dates are '2017.4.7(금) ~ 4.16(일) | 전남 신안군 임자도 튤립공원'. The website 'www.shinan.go.kr' is also mentioned. The background shows a field of yellow tulips.